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7월25일(연중 제17주일)		8월 1일(연중 제18주일)	
새벽 미사	해 설	권미라 리오바		안정준 바오로	
	1독서	변은숙 M.막달레나		변은숙 M.막달레나	
	2독서	도정숙 메히틸다		김인숙 세실리아	
교중 미사	해 설	조성률 스테파노		이상희 로사	
	1독서	김승원 마오로		원은희 율리아	
	2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손 요안나	
화 답 송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7월26일(월)	7월27일(화)	7월28일(수)	7월29일(목)	7월30일(금)
해설	손 요안나	배점미 안나	이정애 실비아	차화선 스텔라	도정숙 메히틸다
독서	박행자 모니카	겸손하신 모후	순결하신 모후	순교자의 모후	애덕의 모후

7월25일 (연중 제17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신희락(요아킴), 박재현(요한보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가정사목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오일규(루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8월 1일 (연중 제18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진호재(라파엘), 이천희(필립보)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성지공원분과
	미사안내	청소년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사도들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사랑터

제1744호

연중 제 17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1년 7월25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북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010-4796-3039(선종단장)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2564-6202(선종부단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정
 -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교황님께서 하느님과 교회가 늘 가까이
- 7/28(수) 미사 없음
- 마산교구 사목국 홈페이지 자료 활용 안내
 - 주소: <http://samok.cathms.kr/xe/>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200주년 자료
 - 노인 사목 관련 자료
- 일과 가까운 7월 네번째 주일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 소공동체<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자료를 매월 게재중입니다.

- 성경 완필자 명단 제출
 - 신.구약 성경 완필하시고, 주교님 완필 축복
 - 일시: 7/31-9/4일
- 장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7/25일까지 사무실
 -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미사 없음
 - 로 신청 바랍니다.

- 교중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분산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8주일 (7/31~8/1일)	특전(18:30)	3구역	연중 제19주일 (8/7~8/8일)	특전(18:30)	4구역, 6구역
	새벽(06:30)	1구역, 기타		새벽(06:30)	3구역
	교중(10:30)	2구역, 5구역 4구역, 6구역		교중(10:30)	1구역, 기타 2구역, 5구역

-사정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을 위한 봉헌서 제출
 - 일시: 목표달성까지 신축기금 봉헌서를 작성해서 제출
 - 납부: 교무금 12개월분 이상 약정하여 22년말까지 봉헌
 - 개인이나 단체의 특별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7월17일(토)-7월23일(금)				*본당 1년 교무금 총액 204,000,000원(343세대) *현재 봉헌서 제출 총액 99,562,000원(140세대)	
박동주 F.로마나(2-3), 엄복순 아셀라(6-7), 백기상 가스발(2), 이순덕 안나(완), 송태영 스테파노(3-4), 이갑례 젤마나(완), 김판곤 오네시모(완), 김종진 안토니오(1) 김명호 마르티노(1-3), 김종실 스테파노(완), 노미션 요셉 피나, 박정숙 카타리나(5), 최창대 베드로(5)					
이번 주 봉헌액: 2,480,000원 (누계:51,524,936원)					
교 무 금 : 7월17일(토)-7월23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박동주(F.로마나)	7	엄복순(아셀라)	7	양희주(안드레아)	4-7
이병관(요셉)	7	정영권(미카엘)	7-8	윤무출(베드로)	7
이정남(안젤라메리치)	7	심상봉(사도요한)	7	강지민(마틸다)	7
김종실(스테파노)	5-7	박종술(안드레아)	7	이진경(방지거)	6
정병희(레오나르도)	7	김명호(마르티노)	6-7	이몽삼(마태오)	7-8
김대환(대건안드레아)	7	이상국(요아킴)	7	이춘악(테레사)	6
서춘자(그라시아)	7	강영순(올리엠타)	6-7	김종호(요한)	7
양귀남(마리아)	6	김정영(요안나)	7	박정숙(카타리나)	8-9
박준규(아우구스티노)	7	박두리(아네스)	7	박순연(마리아)	7
최창대(베드로)	7	전채홍(안토니오)	7	김희덕(바오로)	7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 2,790만원중 761만원 봉헌)					
박준규(아우구스티노)	7	심상봉(사도요한)	7	김정미 루치아	1
이정남(안젤라메리치)	7	이상국(요아킴)	7	이병관(요셉)	7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12명
			교무금		2,300,000원
			주일헌금		1,660,000원
			농민주일 2차헌금		663,000원
			교구사업모금		153,000원
			성소후원금		117,000원

[영혼의 양식]

I.N.R.I 의미

예수님의 십자 고상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 INRI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였던 죄명이다. 즉 사형을 받아야 했던 사형수의 죄명이었다. 그 말의 뜻은 라틴어의 네 가지 단어에서 그 첫째 글자를 딴 내용인데 1. I-Iesus(예수) 2. N-Nazarenus(나자렛 사람) 3. R-Rex(왕) 4. I-Iudaeorum(유대인 들의)이다.

그러니까 INRI의 뜻은 ‘예수 나자레노 유대인들의 왕’이란 뜻이다. 여기서 특히 예수님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름이 ‘나자레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의 장면을 잠깐 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이때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말과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리아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으나 빌라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말이 사형수의 죄명으로 확정됐으나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바로 이 순간이야

한 노인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한여름 피약별이 하얀 머리카락 위로 타듯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때마다 노인은 이마에 송송 맺힌 땀방울을 하얀 모시 소매로 쓱 훔치고는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노인은 구수한 노랫가락을 읊조릴 때마다 참나무로 만든 반들반들한 지팡이를 박자 삼아 두들겼다. 목을 쭉 뻗 나리꽃들이 노인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참 이상하다. 저 노인은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것일까?” 노인의 노랫소리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를 타고 옮겨 다니며 지루한 여름 한나절을 식혀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차였다. “할아버지, 여기예요...” “으응, 예쁜 나리꽃이로구나. 그래 왜 날 불렀니?” 나리꽃은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 버려야 한다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째서 할아버지는 마냥 행복해 보이냐는 것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로 쿵 찌르며 금방 바닷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을 잠시 올려 보더니 말했다. “그래. 아마 나도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나의 현재를 망칠 순 없지 않겠니?” 말을 마친 노인은 조금 전처럼 다시 지팡이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유유히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